

#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적응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기옥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 The effects of dental-hygiene students' goal achievement orientation on their self-efficacy and major adaptation and satisfaction

Gi-Ok Ju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gu Health College*

---

###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goal achievement orientation of the students in dental-hygiene practice classes on their self-efficacy and on their adaptation to and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Methods :**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dental-hygiene students in schools located in the Daegu region on October 24-31, 2011. A total of 212 accomplished questionnaires were gathered as sources of final analytical data.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the SPSS 19.0 program.

**Results :**

1. The students who had good personal relationships( $p=.000$ ) and who chose their major and school based on their aptitude( $p=.029$ ) were found to have a higher degree of satisfaction than those who did not have good personal relationships and who did not choose their major and school based on their aptitude.
2. Self-confidence( $p=.004$ ), self-control efficacy( $p=.000$ ), mastery approach( $p=.000$ ), and performance approach( $p=.003$ ) were found to have positive correlations with major adaptation while task difficulty preference( $p=.000$ )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same.
3. Self-confidence( $p=.004$ ), self-control efficacy( $p=.000$ ), mastery approach( $p=.000$ ), and performance approach( $p=.045$ ) were also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major satisfaction while task difficulty preference( $p=.000$ )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same.
4. Mastery approach( $p=.000$ ) in goal achievement orient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while mastery avoidance( $p=.001$ )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same. Mastery avoidance showed the greatest effect on self-confidence( $p=.000$ ) while mastery approach showed the greatest effect on self-control efficacy( $p=.000$ )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p=.000$ ).
5. In goal achievement orientation, mastery approach( $p=.000$ )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major adaptation while mastery avoidance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same. Meanwhile, with regard to self-efficacy, self-control efficacy( $p=.037$ )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p=.008$ )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

교신저자 : 정기옥 우) 702-722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태전동)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전화 : 053-320-1446, 010-4089-3479 Fax : 053-320-1340 E-mail : jgo1204@dhc.ac.kr

접수일-2012년 1월 16일 수정일-2012년 2월 17일 게재확정일-2012년 2월 20일

on major adaptation.

6. In the case of major satisfaction, mastery approach( $p=.000$ ) in goal achievement orient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t, and in self-efficacy, self-control efficacy( $p=.038$ )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p=.002$ )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it.

**Conclusions** : Accordingly, to raise the level of the dental-hygiene students' adaptation to and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the students should be given appropriate tasks so that they can raise their mastery goal, and they should be encouraged to raise their approach goal rather than their avoidance goal. In addition, the students should be provided assistance in setting self-expectations and in developing confidence in their capabilities.(J Korean Soc Dent Hygiene 2012;12(1):167-177)

**keyword** : goal achievement orientation, major adaptation,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색인** :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전공적응

## 1. 서론

보건계열 치위생과 대학의 실습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떤 성취목표를 가지고 실습에 임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실습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와 전공에 대한 적응 및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다<sup>1)</sup>. 따라서 학생들의 흥미/동기 및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개인차 변인들 중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동기적 요인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라 하였다<sup>2, 3)</sup>.

성취목표지향성은 개인의 동기적 특성으로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참여하려는 목적 또는 이유로 특히 숙달목표가 학업성취도와 동기/흥미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sup>4)</sup>. 2X2 성취목표 구조의 각 목표는 접근 또는 회피 성향에 따라 타인과의 상대적인 유능성을 획득하려는 수행접근목표, 상대적인 무능력을 회피하려는 수행회피목표, 과제의 숙달이나 능력의 발전을 달성하려는 숙달 접근목표, 자신의 능력이 감소하거나 숙달이나 학습에 실패할 부정적인 가능성을 회피하려는 숙달회피목표로 구분된다<sup>5)</sup>.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또는 당면한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기대감이다. 이 또한 동기와 인지 및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요한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기능을 구조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 감으로 정의된다<sup>6~8)</sup>.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

구들에서는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업적응의 관련성이 깊다고 보고하였다<sup>9)</sup>.

또한 대학생활의 적응은 학업, 대인관계, 대학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발달과 미래의 사회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이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응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sup>10)</sup>.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선택의 이유로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적성을 고려하게 된다면 전공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성취목표지향에 따른 치위생과 실습수업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제시된 학습목표를 실습시간에 행해진 반복된 수행으로 학생들의 전공적응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과 실습수업에서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이 전공적응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고,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지역 소재하는 D대학 치위생과에서

2011년 2학기에 치위생과 실습관련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재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질문지법으로 이루어졌으며, 2011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설문지 가운데 주요 항목의 결측값으로 인해 연구에 이용할 수 없는 설문지 8부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212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설문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적응 및 만족,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3가지 영역 총 5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은 수업에 대한 개인의 성취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김<sup>11)</sup>에 의해 타당화된 성취목표지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 목표지향성의 4가지 요인에 각 5문항씩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실히 아니다(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5점)'의 5단계 Likert 식 척도이다. 각 항목에 대한 신뢰도분석 결과, 숙달접근(Cronbach  $\alpha$ =.77), 숙달회피(Cronbach  $\alpha$ =.84), 수행접근(Cronbach  $\alpha$ =.83), 수행회피(Cronbach  $\alpha$ =.84) 모든 영역에서 척도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실습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고자 김과 차<sup>12)</sup>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2문항, 과제난이도선호 5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실히 아니다(1점)', '상당히 아니다(2점)', '약간 아니다(3점)', '약간 그렇다(4점)', '상당히 그렇다(5점)', '확실히 그렇다(6점)'의 6단계 Likert 식 척도이다. 자신감 7문항과 과제난이도 선호 가운데 2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신뢰도분석 결과, 자신감(Cronbach  $\alpha$ =.78), 자기조절효능감(Cronbach  $\alpha$ =.81), 과제난이도선호(Cronbach  $\alpha$ =.77) 모든 영역에서 척도의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 2.3. 통계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패키지 SPSS 19.0(SPSS 19.0KO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USA)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적응 및 만족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를 통하여 연구대상자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교차분석을 통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적응 및 만족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적응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성적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적응 및 만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여학생 가운데 1학년이 39.6%, 2학년이 39.2%, 3학년이 2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66.0%는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41.0%가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66.5%의 대다수 학생들이 '취업률을 고려'하여 해당학과를 선택하였다고 하였고, 24.1%가 전공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3.3%는 전공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 만족의 경우 41.5%가 본인의 전공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3.8%가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 연구대상자의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인 성취목표지향성(5점 리커트 척도, 1=강한 부정, 5=강한 긍정), 자기효능감(6점 리커트척도, 1=강한 부정, 6=강한 긍정)에 대한 대상자의 평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적응 및 만족

구분		N	%
성별	여	212	100.0
학년	1학년	84	39.6
	2학년	83	39.2
	3학년	45	21.2
종교	유	72	34.0
	무	140	66.0
대인관계	좋음	87	41.0
	보통	123	58.0
	나쁨	2	1.0
입학동기	취업률 고려	141	66.5
	부모님 · 교사 · 선배 권유	37	17.5
	적성 고려	24	11.3
	기타	10	4.7
전공적응도	잘함	51	24.1
	보통	154	72.6
	못함	7	3.3
전공만족도	만족	88	41.5
	보통	116	54.7
	불만족	8	3.8
합계		212	100.0

표 2. 연구대상자의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성취목표지향성	숙달접근	1.80	5.00	3.69	.57
	숙달회피	1.00	5.00	3.20	.77
	수행접근	1.40	5.00	3.55	.68
	수행회피	1.00	5.00	3.09	.80
자기효능감	자신감	1.71	5.71	3.63	.76
	자기조절효능감	2.25	5.00	3.86	.48
	과제난이도선호	1.00	4.80	3.12	.70
전체		2.16	4.87	3.53	.46

성취목표지향성: 5점 리커트척도(최소 1점, 최대 5점)

자기효능감: 6점 리커트척도(최소 1점, 최대 6점)

균은 <표 2>와 같다.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영역인 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의 경우 접근의 측면이 강하고, 회피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를 살펴보면,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과제난이도선호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 3.3. 연구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연구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라 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Scheffe)을 한 결과, 숙달접근, 숙달회피 정도 모두 2학년, 3학년들에 비해 1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4.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와 입학동기에 따른 전공적응 및 전공만족

대인관계 및 입학동기와 전공적응 및 만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대인관계와 전공적응 및 만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학동기와 전공만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전공적응과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학동기에 있어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전공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5.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전공적응 및 만족 간의 상관관계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전공적응 및 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가운데 자신감의 경우 숙달회피( $r=-.30$ ), 수행회피( $r=-.19$ )와 부적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전공적응도( $r=.20$ ), 전공만족도( $r=.20$ )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조절효능감의 경우 숙달접근( $r=.56$ ), 수행접근( $r=.25$ ), 전공적응도( $r=.29$ ), 전공만족도( $r=.28$ )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제난이도선호의 경우 숙달접근( $r=.41$ )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전공적응도( $r=-.32$ ) 전공만족도( $r=-.32$ )와 부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취목표지향성의 경우 숙달접근과 수행접근에서 전공적응도( $r=.33$ ,  $r=.37$ ), 전공만족도( $r=.21$ ,  $r=.14$ )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학년			F
		1학년	2학년	3학년	
성취목표 지향성	숙달접근	3.86(±0.54) <sup>b</sup>	3.56(±0.56) <sup>a</sup>	3.62(±0.55) <sup>a</sup>	6.95**
	숙달회피	3.41(±0.79) <sup>b</sup>	3.04(±0.71) <sup>a</sup>	3.10(±0.78) <sup>a</sup>	5.38**
	수행접근	3.70(±0.73)	3.46(±0.65)	3.47(±0.59)	3.09*
	수행회피	3.10(±0.81)	3.00(±0.84)	3.23(±0.70)	1.11
자기효능감	자신감	3.65(±0.070) <sup>1)</sup>	3.75(±0.73)	3.41(±0.84)	2.94
	자기조절효능감	3.85(±0.43)	3.87(±0.52)	3.86(±0.51)	0.05
	과제난이도선호	3.13(±0.73)	3.14(±0.69)	3.07(±0.61)	0.16
전체		3.54(±0.43)	3.59(±0.49)	3.45(±0.44)	1.37

<sup>1)</sup> 평균±표준편차, \* $p<.05$  \*\* $p<.01$

a, b는 사후분석 결과임

표 4.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와 입학동기에 따른 전공적응 및 전공만족

		대인관계		$\chi^2$ df p
		좋음	보통 · 나쁨	
전공적응도	잘함	37 (42.5%)	14 (11.2%)	$\chi^2=27.56$ df=1 p=.00
	보통 · 못함	50 (57.5%)	111 (88.8%)	
전공만족도	만족	46 (52.9%)	42 (33.6%)	$\chi^2=7.85$ df=1 p=.01
	보통 · 불만족	41 (47.1%)	83 (66.4%)	

  

		입학동기				$\chi^2$ df p
		취업률 고려	부모님 교사 선배권유	적성 고려	기타	
전공적응도	잘함	30 (21.3%)	10 (27.0%)	10 (41.7%)	1 (10.0%)	$\chi^2=5.93$ df=3 p=.12
	보통 · 못함	111 (78.7%)	27 (73.0%)	14 (58.3%)	9 (90.0%)	
전공만족도	만족	53 (37.6%)	13 (35.1%)	18 (75.0%)	4 (40.0%)	$\chi^2=12.61$ df=3 p=.01
	보통 · 불만족	88 (62.4%)	24 (64.9%)	6 (25.0%)	6 (60.0%)	

p-값은  $\chi^2$ -검정 결과임

표 5.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전공적응 및 만족 간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 자신감	1								
2. 자기조절효능감	.22**	1							
3. 과제난이도선호	.27***	.31***	1						
4. 숙달접근	.09	.56***	.41***	1					
5. 수행접근	-.30***	.10	.08	.37***	1				
6. 수행접근	-.11	.25***	.06	.50***	.44***	1			
7. 수행회피	-.19**	.10	-.07	.18*	.46***	.56***	1		
8. 전공적응도	.20**	.29***	-.32***	.33***	-.03	.21**	.08	1	
9. 전공만족도	.20**	.28***	-.32***	.37***	.06	.14*	-.01	.55***	1

\*p&lt;.05 \*\*p&lt;.01 \*\*\*p&lt;.001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을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계수(r)를 통해 확인



### 3.6.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성취목표지향성 하부요인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영역은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신감  $R^2=.14$ , 자기조절효능감  $R^2=.32$ , 과제난이도선호  $R^2=.19$ ). 이 가운데 숙달접근과 숙달회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대학생들의 자신감에는 숙달회피( $\beta=-.35$ ), 숙달접근( $\beta=.23$ )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들의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에는 숙달접근(자기조절효능감  $\beta=.61$ , 과제난이도선호  $\beta=.48$ )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의 전체 자기효능감에는 숙달접근( $\beta=.58$ ), 숙달회피( $\beta=-.24$ ) 순으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숙달접근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숙달회피 정도가 낮을수록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3.7. 전공적응에 영향을 주는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하부요인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이 대학생들의 전공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의 전공적응도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성취목표지향성  $R^2=.11$ , 자기효능감  $R^2=.14$ ). 이들의 하위요소 가운데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 숙달접근, 숙달회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성취목

표 6.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성취목표지향성 하부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t	F	$R^2$	수정된 $R^2$
자신감	(상수)	3.91		11.13***	8.13***	.14	.12
	숙달접근	.30	.23	2.92**			
	숙달회피	-.34	-.35	-4.44***			
	수행접근	-.04	-.04	-.43			
	수행회피	-.05	-.06	-.67			
자기조절 효능감	(상수)	2.18		10.90***	24.36***	.32	.31
	숙달접근	.52	.61	8.72***			
	숙달회피	-.09	-.15	-2.11			
	수행접근	-.02	-.03	-.39			
	수행회피	.05	.08	1.04			
과제난이도선호	(상수)	1.67		5.33***	12.08***	.19	.17
	숙달접근	.59	.48	6.30***			
	숙달회피	.00	.00	.01			
	수행접근	-.14	-.14	-1.53			
	수행회피	-.07	-.08	-1.03			
자기효능감	(상수)	2.58		13.19***	19.35***	.27	.23
	숙달접근	.47	.58	8.06***			
	숙달회피	-.14	-.24	-3.36**			
	수행접근	-.07	-.10	-1.20			
	수행회피	-.03	-.05	-.60			

\* $p<.05$  \*\* $p<.01$  \*\*\* $p<.001$

표 7. 전공적응에 영향을 주는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하부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t	F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전공적응	(상수)	-.45		-2.18*	6.04***	.11	.09
	숙달접근	.23	.30	3.79***			
	숙달회피	-.11	-.20	-2.56*			
	수행접근	.05	.08	.87			
	수행회피	.01	.01	.12			
전공적응	(상수)	-.84		-3.39**	7.89***	.14	.12
	자신감	.06	.10	1.48			
	자기조절효능감	.13	.15	2.10*			
	과제난이도선호	.12	.19	2.67**			

\*p&lt;.05 \*\*p&lt;.01 \*\*\*p&lt;.001

표지향성을 살펴보면, 전공에 적응을 잘하는 학생의 경우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숙달접근 정도가 강하고, 숙달회피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30$ ,  $\beta=-.20$ ).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전공에 적응을 잘하는 학생의 경우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자기조절효능감이 높고, 과제난이도선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15$ ,  $\beta=.19$ ) 즉, 숙달접근, 숙달회피, 과제난이도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순으로 대학생들의 전공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3.8. 전공만족에 영향을 주는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하부요인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이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제시된 바와 같이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성취목표지향성  $R^2=.12$ , 자기효능감  $R^2=.15$ ). 이들의 하위요소 가운데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 숙달접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성취목표지향성을 살펴보면, 자신의 전공에 만족을 하는 학생의 경우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숙달접근 정도가

표 8. 전공만족에 영향을 주는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하부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t	F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전공만족	(상수)	-.36		-1.52	7.03***	.12	.10
	숙달접근	.32	.37	4.61***			
	숙달회피	-.03	-.05	-.60			
	수행접근	-.03	-.04	-.44			
	수행회피	-.07	-.11	-1.29			
전공만족	(상수)	.70		2.23**	11.95***	.15	.14
	자신감	.07	.10	1.44			
	자기조절효능감	.22	.19	2.75**			
	과제난이도선호	.19	.24	3.40**			

\*p&lt;.05 \*\*p&lt;.01 \*\*\*p&lt;.001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37$ ).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자신의 전공에 만족을 하는 학생의 경우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자기조절효능감이 높고, 과제난이도선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19$ ,  $\beta=.24$ ). 즉, 숙달접근, 과제난이도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순으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총괄 및 고안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년, 대인관계, 입학동기 등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전공적응 및 만족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이 전공적응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의 경우, 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에 있어 학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접근은 1학년들이 다른 학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숙달회피와 수행접근에 있어서도 숙달접근과 마찬가지로 1학년들이 다른 학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숙달목표가 감소된다는 소<sup>2)</sup>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각 학년에서 전반적으로 숙달접근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전계열학과인 작업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의 황과 노<sup>13)</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치위생과 신입생 대상에서 수행회피가 나머지 성취목표지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임<sup>14)</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은 회피목표에 비해 접근목표가 더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학년, 대인관계, 입학동기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3학년들의 경우 2학년들에 비하여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감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3학년들이 저학년들에 비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되고, 경쟁을 통해 순위가 결정 지워지기도 하고, 외부 임상실습을 통한 스트레스를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서 국가고시 및 임상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되어 일시적으로 자신감이 위축되고, 자기효능감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적응 및 만족의 경우 대인관계와 입학동기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sup>15)</sup>, 임 등<sup>16)</sup>의 치위생과 학생들의 입학동기에 따른 전공만족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즉,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들의 경우 전공에 대한 적응과 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학동기에 있어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전공에 대한 불만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 또는 입학동기 등은 그들의 학업적인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 전공적응 및 만족 간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와 숙달접근, 숙달접근과 전공적응 및 만족이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2명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sup>1)</sup>의 결과와 소<sup>2)</sup>의 의대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안과 김<sup>17)</sup>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성취목표지향과 학문적 효능감 사이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일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 모두와 전공적응 및 만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은 전공적응 및 만족과 정적 상관관계를, 과제난이도선호는 전공적응 및 만족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변인들 가운데서는 숙달접근과 수행접근이 전공적응 및 만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성취목표지향성의 영향력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 등은 본 연구에 있어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27% 설명으로, 17% 설명하였다는 김<sup>1)</sup>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성취목표지향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신감에는 숙달회피가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에는 숙달접근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즉, 숙달접근 정도가 높을수록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숙달회피 정도가 낮을수록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획득하려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정도가 높아져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전공적응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취목표지향성의 경우 전공적응을 11% 설명하였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전공적응을 14% 설명하였으며, 강<sup>18)</sup>의 연구에서 이공계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전공적응의 16.4%로 설명되어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전공에 적응을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숙달회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전공만족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취목표지향성의 경우 전공만족을 12% 설명하였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15% 설명하였다.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숙달접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숙달목표는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며, 전공적응 및 만족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달성 및 획득에 대한 욕구에 자신에 대한 기대감, 자기능력에 대한 확신감 등이 더해져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게 되고, 학업성취도를 높여 전공에 대한 적응 및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은 나아가 학생들의 전공적응 및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고, 전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과제를 제공하여 숙달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피목표보다는 접근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지역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을 보완한 추후 연구의 진행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공 적응과 만족에 대한 세부 항목을 설정하여 각 하위변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적응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전공적응 및 만족을 알아보고자 대구지역 소재한 D대학을 선정하여 치위생과 1, 2, 3학년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취목표지향성의 경우, 숙달접근( $p=.001$ ), 숙달회피( $p=.005$ ), 수행접근( $p=.048$ )에 있어 타학년에 비하여 1학년의 성취목표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전공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 ).
3. 대인관계( $p=.000$ )가 좋고, 입학동기( $p=.029$ )에 있어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신감( $p=.004$ ), 자기조절효능감( $p=.000$ ), 숙달접근( $p=.000$ ), 수행접근( $p=.003$ )은 전공적응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과제난이도선호( $p=.000$ )는 전공적응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전공만족 또한 자신감( $p=.004$ ), 자기조절효능감( $p=.000$ ), 숙달접근( $p=.000$ ), 수행접근( $p=.045$ )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과제난이도선호( $p=.000$ )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성취목표지향성 가운데 숙달접근( $p=.000$ )은 자기효능감에 정적영향, 숙달회피( $p=.001$ )는 자기효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감( $p=.000$ )에는 숙달회피가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자기조절효능감( $p=.000$ )과 과제난이도

선호( $p=.000$ )에는 숙달접근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7. 성취목표지향성에 있어 숙달접근( $p=.000$ )은 전공 적응에 정적영향, 숙달회피( $p=.011$ )는 전공적응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효능감에 있어 자기조절효능감( $p=.037$ )과 과제난이도선호( $p=.008$ )는 전공적응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전공만족의 경우, 성취목표지향성 가운데 숙달접근( $p=.000$ )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 가운데 자기조절효능감( $p=.038$ )과 과제난이도선호( $p=.002$ )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적응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수행에 있어 선택의 폭을 넓게 하여,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실습수업에 활용이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김영상. 치의학 실습수업에서 성취목표 지향성이 자기동기화, 자기조정학습전략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학교육학회지 2008;20(3):199-208.
2. 소연희. 의과대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이 수업에 대한 흥미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학연구 2008;20(1):37-49.
3. Perrot LJ, Deloney LA, Hastings JK, et al. Measuring student motivation health professions' colleges. Adv Health Sci Educ Theory Pract 2001;6(3):193-203.
4. Wolters C. Advancing achievement goal theory: Using goal structures and goal Orientations to predict students' motivation, cognition, and achievement. J Educ Psychol 2004;96(2):236-250.
5. Elliot A, McGregor HA. A 2X2 Achievement goals, study strategies, and exam performance: A mediational analysis. J Educ Psychol 2001;91:549-563.
6.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 Rev 1977;84(2): 191-215.
7. Zimmerman B.J. A Social cognitive view of self-regulated academic learning. J Educ Psychol 1989;81:359-339.
8. 성소연. 2×2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학업 성취와의 관계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2007.
9. 박선영. 자아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2003.
10. 조은아. 낙관성/비관성이 대학생활적응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성취목표지향성을 매개변인으로[석사학위논문]. 부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2010.
11. 이주화, 김아영. 학업적 성취목표지향성 척도 개발. 교육심리연구 2005;19(1):311-325.
12. 김아영, 차정은.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1996:51-64.
13. 황기철, 노효련. 학습자중심 교육 접근을 위한 작업치료학과 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성취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0;11(6):2138-2143.
14. 임순연.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성격선호지표와 성취목표, 학업적 자기효능감, 시험불안의 관계. 한국치위생학회지 2010;10(6):1025-1035.
15. 원영순, 정미희. 치위생과 학생들의 입학동기에 따른 전공 만족도 조사. 치위생과학회지 2004;4(2): 85-90.
16. 임미희, 구인영, 최혜숙.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의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2011;11(5):811-822.
17. Ahn DH, Kim OB. Perfectionism, achievement goals, and academic efficacy in medical stu-

dents, Korean J Med Edu 2006;18(2):141-152.

18. 강혜영. 이공계 대학생의 흥미-전공일치도, 자기  
효능감과 전공적응도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2011;  
12(1):115-127.